

제3강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1)

-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 6:6,7)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다"는 "되풀이 하여 가르쳐서 남게 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가르침은 아이들의 본성에 가르침이 심길 수 있도록 기회가 닿을 때 마다 되풀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익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것은 부모의 인생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 4:10)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신 11:19)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게"라는 단어는 본래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가축을 모는 막대기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가축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내고 황소나 젖소들을 모는데 사용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극을 주며 찰라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왜 말씀을 심어야 할까요?

자녀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모들의 교육과정입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의 목표는 말씀교육이고, 말씀교육의 목표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평생토록 그 말씀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책임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다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자녀교육에서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갈 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엡 4:13-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우리 자녀교육의 분명한 목적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2.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무한한 능력,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참되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절대 복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어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롭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되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예수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1)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삶의 실제 영역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전 2: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전 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나침반이고 또 자녀양육의 나침반입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도 없습니다. 거듭남은 은혜로 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딤후 3:17).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에서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녀를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성경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딤후 3:15)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벧후 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3)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맡겨진 책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성숙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성장과 성숙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절대시간)

1분 만에 이루어지는 성숙 같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면,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딤후 3: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3.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신 6:6-9)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려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르침의 원칙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요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신 11:18)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은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과 뜻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를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성경읽기와 성경연구, 말씀 나눔, 설교듣기, 매일 묵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라는 양육자로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 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 1) 어머니 자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 2) 자녀들과의 일상 대화에서 얼마나 성경을 자주 인용하는가?
- 3) 일상생활 중에서 성경으로 교훈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한가?
- 4)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에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가요? 아니면 성경을 싫어하게 하는가?
- 5) 자녀의 행동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 성경을 일관되게 적용하는가?
- 6) 자녀를 의로 교육함과 장래 자녀의 올바른 삶을 돕기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엡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4.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며’는 ‘두 번 이야기 하다, 다시 말하다, 반복해서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운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의 실제 상황에서 반복하여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자신, 부모와 자신, 형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석뿐 아니라 본문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먼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과 기준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는 행동과 생각의 통제기준이 되는 것이며,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실제 생활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다양하나 삶의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실제 삶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은 보다 큰 집중력과 이해력을 보입니다. 가구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사포질을 해두면 페인트가 잘 칠해 지는 것과 같이 성경과 삶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ex) TV 프로그램을 못 보게 된 것에 대해 아이의 의문과 나의 시간 관리 문제라는 상황 속에서
마 5:29,30절 말씀을 가르쳤을 때 ……
-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실제로 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것을 삶에서 제하라는 말씀이야

ex)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당황스런 경우가 만들어질 때 ……
① 상황의 발견
② 적절한 성경 구절을 생각함
③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설명함

ex) 저녁 메뉴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만 놀고 공부해야 할 때, 잠 잘 시간이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빌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실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배움은 학습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진리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11:28)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정에서 말씀의 현장이 펼쳐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경 지식의 보고(寶庫)로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3) 성경으로 교육할 때 주의할 점

- ① 자녀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성경적 응답을 못해주게 되면, “엄마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이야기해 줄게요.”라고 이야기한 후, 그날 안에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기억이 퇴색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자녀가 이해 할 수 있는 단어를 찾도록 노력하세요.
- ③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녀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가르치는 시간을 비교적 짧게 잡습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요즘 실시해보는 역할연습을 활용하여 자녀와 성경본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성경본문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 ⑥ 본문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으로 만들어보게 하세요.
- ⑦ 자녀가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가르치세요. 양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⑧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암송을 사용하세요. 잠자리에서 7~12일간 같은 본문을 이야기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